

월요광장

나는 대필 필자입니다



김형중
조선대 교수·문학평론가

들었고, 신춘문예나 잡지 문예 공모에 '생성형 AI 사용 금지' 항목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지켜봐 왔던 터다. 그래서였을까? 꿈도 꾸었다. 모 일간지 신춘문예 문학평론 분야 심사를 앞둔 며칠 전 꿈 꿨이었는데, 아뿔싸! 내가 뽑은 당선작이 AI의 작품이란다.

게으른 터라 프로이트 로봇은 아직 다 읽지 못했다. 게다가 예술 예상과 달리 요즘 흔한 인공지능 관련 교양서를 훌쩍 뛰어넘는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이쯤은 자연스럽게 '대필'의 차이가 명료하게 이해된다. 게다가 저 녀석은 스스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대해 고백하는데, AI가 활용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편향된 언어적 관습과 상징체계에 의해 감염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는 마치 프레드릭 제임슨('정치적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슬쩍 암시하듯 '문화적 무의식'이란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를 AI의 알고리즘과 유비시키는 논리 전개도 탐월하다. 이제 고백한다. 사실 저 문장들의 내용은 이번 지면에 내가 쓰려던 바 그대로다. 아니나 다를까, AI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다.